

#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 내년 라스베이거스 달린다”

## CES2022 결산

칼 이아그넬마 모셔널 CEO 인터뷰  
기술적으로 완전 자율차 운영 가능  
E-GMP 플랫폼 우수성 인정 받아  
자율주행 서비스 경험, 핵심 경쟁력

“아이오닉5는 로보택시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전동화·자율주행의 대표 차량이 될 것입니다.”

현대차와 애플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칼 이아그넬마 CEO(최고 경영자)는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 기간 서면인터뷰에서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아이오닉5 로보택시 활용과 미래 사업 계획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애플과 합작해 만든 모셔널에서 아이오닉5로 만든 ‘로보택시’로 실현되고 있다. E-GMP 플랫폼의 우수성도 인정 받고 있다.

모셔널은 지난달 우버 이츠와 제휴해 음식 자율배달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를 통해서다. 현대차는 먼저 모셔널에 로보택시 기반의 배달 서비스 계획에 대하여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 질문했다.

“자율배달은 모셔널에게 기회다. 미국 시장에서 음식 배달은 팬데믹 이후 2배로 성장했고, 2021년 한 해 동안 음



모셔널 칼 이아그넬마 CEO가 아이오닉5 로보택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식배달 앱의 사용률은 20% 증가했다. 모셔널이 음식배달 시장에 진출하면서 승차공유와 자율배달 서비스를 그 수요에 따라 번갈아 수행하는 등 이중 목적 기반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로보택시 운영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버 이츠뿐 아니라 다른 배달서비스 업체와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로보택시는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제작된다. 아이오닉5가 로보택시에 활용되는 장점이 무엇일까. 현대차는 두 번째 질문을 건넸다.

“아이오닉5는 모빌리티 변화의 큰 축인 전동화와 자율주행을 대표하는 차량이다. 탄소배출이 없어 지속 가능

한 운행이 가능하다. 더불어 파워트레인의 효율성은 빠른 충전과 긴 주행거리를 제공하므로 충전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진보된 자율주행 기술에 날렵한 디자인, 쾌적한 실내 인테리어도 갖췄다.”

현대차는 그 다음으로 모셔널의 기술과 사업적 강점을 물었다. 미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셔널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모셔널은 현대차그룹과 애플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문 지식도 보유했다. 기술적으로

공공도로에서 완전 자율차를 운영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 중 하나다.

2021년 초부터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시작해 2023년에는 라스베이거스를 시작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반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리프트와 비아, 우버 이츠와 제휴한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다. 이미 수백만명의 고객에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이미 전세계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실제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있고 완전자율주행도 실증하고 있다. 이제는 규모를 키우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비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현대차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은 핵심 이유다. 아이오닉5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글로벌 생산을 위한 비용 최적화에 집중해 광범위한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상용화돼도 여전히 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모셔널은 4년 이상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수십만명에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이는 모셔널이 보유한 핵심 경쟁력이다. 고객들이 실제로 로보택시를 이용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기술에 대한 관심보다 충분한 트렁크 공간 등 일반적인 승차 서비스에 관

심이 많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덜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로보택시의 상업 서비스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고객 경험에 치중해야 하는 이유다. 아이오닉5 로보택시도 자유롭게 상호작용하고 간편하게 수정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곳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까. 칼 이아그넬마 CEO는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환경으로 테스트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VA 기능이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당사의 RVA(원격 차량 지원)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관제사가 즉시 차량 시스템에 접속해서 새로운 경로로 수정하거나 여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기술이 적용돼 특정 상황별 솔루션도 추천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자율주행은 수백만명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개인 차량 의존도를 낮춰 기후변화 영향력도 줄일 수 있다. 차량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목적으로 개발된 공공 구역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또 이동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하루의 시간을 추가로 확보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홍콩 아파트 전경.

/유도이미지

## 세계 1위 홍콩 집값 내린다?... 하락 전망 솔솔

### ● 차이나 뉴스&리포트

UBS “홍콩 주택 가격 5% 하락 예상”  
모건스탠리 “13년 연속 강세 멈출 것”

세계 최고가를 자랑하는 홍콩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멈출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에 이어 UBS도 올해 홍콩의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UBS는 홍콩의 주택 가격이 올해 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의 집값은 지난 13년간 상승세를 이어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홍콩의 집값이 내릴 것으로 예측한 것은 모건스탠리에 이어 두 번째다. 존 램 UBS 리서치 중국·홍콩 부동산

담당은 UBS 중화권 컨퍼런스에서 “홍콩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갖고 있다”며 “올해 거주용 주택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이어진 이민 물결에 본토의 규제 강화까지 겹쳤다.

그는 “대규모의 이민 움직임과 중국 본토의 경제성장 둔화,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유출, 압박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모두 홍콩의 집값을 끌어 내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인구 감소세는 가파르다. 보안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약 9만 명의 시민이 홍콩을 떠났다.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이 홍콩을 떠나기 전 내놓은 급매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홍콩 튼튼의 469제곱피트(약 13평 안팎) 아파트는 소유자가 이민을 가면서 570만 홍콩달러에 집을 내놨지만 결국 518만 홍콩달러에 팔렸다. 마온산 지역의 다른 아파트는 2018년 매매가가 755만 홍콩달러였지만 이달 초에 730만 홍콩달러로 주인이 바뀌었다.

앞서 지난달 모건스탠리는 올해 홍콩의 집값이 2% 하락해 13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홍콩 주택 가격은 지난해 8월을 정점으로 11월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반면 JP모건체이스는 경제 성장으로 홍콩의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이민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고, 집값도 5~1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안상미 기자 smahnl@

## 양자컴·반도체 등 R&D에 904억 투자

과기부 ‘ICT 원천연구개발사업’  
지난해 467억 대비 2배 늘어  
6개 신규 사업에 384억 지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대표적인 첨단기술인 양자컴·슈퍼컴, 반도체, 초전도 분야에 대한 정부 R&D(연구개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04억원 규모의 ‘2022년도 ICT 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6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이 중 384억원이 6개의 신규사업에 지원된다.

과기부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 역량 확보 및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양자컴퓨팅 분야는 집약된 연구개발 및 긴밀한 국내외 협력을 통해 기술 추격과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100억원을 투자해 양자컴퓨팅 기술 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및 구축에 착수한다.

양자컴퓨팅 시스템 시범 운영 및 클라우드·테스트베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자가상머신 개발·구축 및 서비스에 나선다.

대학·학제 간 개방형 양자융합교육

과정 개발을 통해 최고급(박사급) 양자 전문인력인 ‘양자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양자정보과학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도 신규 추진된다. 1개 센터 운영에 10억원이 투입된다.

또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의 일환으로 미국 내 협력거점으로서 양자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60억원을 투자해 10여개의 기술분야별 공동연구센터도 연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서는 137억원을 투자, 고성능 CPU(중앙처리장치) 개발을 위해 자체 가속기 기반 진화형 서버 프로세서(CPU+가속기 통합 SoC)의 프로토타입 칩 제작·검증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는 97억원을 투입해 미래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기억(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 PIM(Process in Memory) 개발에 착수하고, 75억원 규모로 미래유망 화합물 반도체인 에피(Epi) 소재·소자 및 공정기술 개발도 신규 추진된다.

초전도 분야에서는 40억원을 투자해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분야로 의료·국방·전력·에너지·교통 등 다양한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술에 대해 4대 마그넷 원천기술 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